정부 · 종교 간 코로나 대응 체계 만든다

불교 등 종교지도자, 정세균 총리와 회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부와 종교계가 코로나19 방역 공조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은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언급한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의 첫 회의이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대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함께 했다.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향후 논의 결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건으로 상정돼 관련 방역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날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분노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종교계가 주도해 치유해주길 요청했다.

정 총리는 "현재 한국사회는 '코로나 블루(우울)'와 '코로나 레드(분노)'를 앓고 있다. 일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퀘렌시아(Querencia,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물리적 방역을 책임지겠으니, 정신적 방역은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은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방역협의회 구성… 첫 회의
긴밀한 방역공조 체계 구축
원행 스님 "위기 극복 앞장"
丁 "종교, 마음방역 주도를"

이어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 확산 방지의 중대한 고비"라며 "종교계가 방역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종교지도자를 대표한 모두 인사를 통해 종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종교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했다. 하지만 일부의 종교단체로 인해 감염 확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은 우리 종교계의 인식 전환과 각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 종교계가 앞장서서 방역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때로는 서로 경책하고 조언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당국에서도 종교단체를 단순히 자제와 제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방역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공동의 실천을 해나가는 주요한 동반자로서 인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안하며 "종교지도자들은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에 협력해 종교가 위기 극복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체를 이끌게 된다.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5일 개원

9월23일 연석회의서 결정
종정감사는 문건 대체키로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다루는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12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연석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정감사를 수검자료 제출로 대체키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종회의 연수 일정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양평 일원서 개최하기로 결의 했다. 특히 일정 중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중흥 국난극복 자비순례'에 함께 동참키로 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사찰 전기요금 한해 78억원 '폭탄'

조계종, 전통사찰 전기요금 전수조사 발표

81개 사찰 납부 총액 78억원
연간 평균 납액 9700여 만원
전각 대부분 '일반용' 적용돼
"전통사찰 · 문화재용 신설돼야"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중 불교문화재 비율은 56.4%이며, 보물 내 불교문화재 비율은 65.3%에 달한다. 이들 불교문화재가 보존 · 관리되는 주요한 장소가 바로 전통사찰이다. 사실상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준공공시설이지만,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로 매년 '요금폭탄'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삼혜)은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주요 수말사 등 81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소속 81곳의 전통사찰은 지난 2019년 한해동안 78억 4000여 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사찰별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9700여 만 원에 달한다. 2018년 기준으로 967개 전통사찰이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백여 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에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행 6종 요금체계에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용 △심야용으로 나눠 부과하는데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다. 가장 비싼 요율을 적용받는 것은 일반용으로 kWh당 판매단가가 130.33원이며 산업용이 106.56원, 주택용이 104.95원, 교육용이 103.85원, 농사용이 47.74원이다.

문제는 전통사찰에 가장 비싼 '일반용'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81곳 전통사찰의 전기요금을 계약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비율은 76.4%에 달한다. 전각 및 요사채, 주차장, 매표소, 템플스테이 체험관 등 대다수의 사찰 전각과 공익시설 물들이 일반용 요금을 부과받고 있다. 교육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성보박물관은 17곳만이 해당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조계종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전통사찰용'이나 '문화재용' 전기요금체계를 신설하거나 전통사찰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할인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전기요금체계에서 비교적 저렴한 교육용 요금 적용 대상에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호 · 관리 시설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승환 조계종 기획차장은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할 경우 20% 가량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정부와 국회 등에 전통사찰의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등도 전통사찰이 있는 만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의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도후 · 지명스님 원로의원 '선출'

대종사 21명, 명사 2명도 법계 심의 의결

조계종 원로회의는 9월 25일 64차 회의를 열고, 신임 원로의원에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성, 대원, 지원, 도후, 인보, 성웅, 지호, 현근, 허정, 무공, 자광, 성법, 원택, 혜총, 흥교, 인각, 지은, 도명, 성림, 무애, 도영 스님 등이 대종사 법계를 받으며, 비구니 일연 스님과 지형 스님이 명사 법계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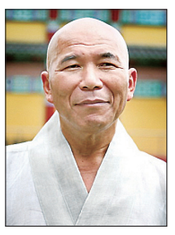
이번에 원로의원이 된 도후 스님은 2018년 입적한 무산 스님의 후임으로, 지명 스님은 임기 만료된 월탄 스님이 후임으로 각각 중앙종회에서 추천됐다.

도후 스님은 1968년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재적본사는 신흥사다. 1968년 신흥사서 사미계를 1974년 법주사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제 백담사, 고성 건봉사, 철원 심원사, 양양 낙산사 주지 등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규정부장, 불교신문 주간, 불교방송 이사장, 춘천불교방송 사장, 제12 · 13대 중앙종회의원 등 다양한 소임도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2006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섰다.



도후 스님



지명 스님

지명 스님은 前조계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2년 금산사에서 용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범어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청룡암과 의왕 청계사, 괴산 각연사 주지를 맡았으며, 제9, 12, 14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또 법주사 주지를 맡아 교구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원로회의에는 전체 원로의원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 예방에 만전이 기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신도역량 결집 활동 추진"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임명
원행 스님, 신도결집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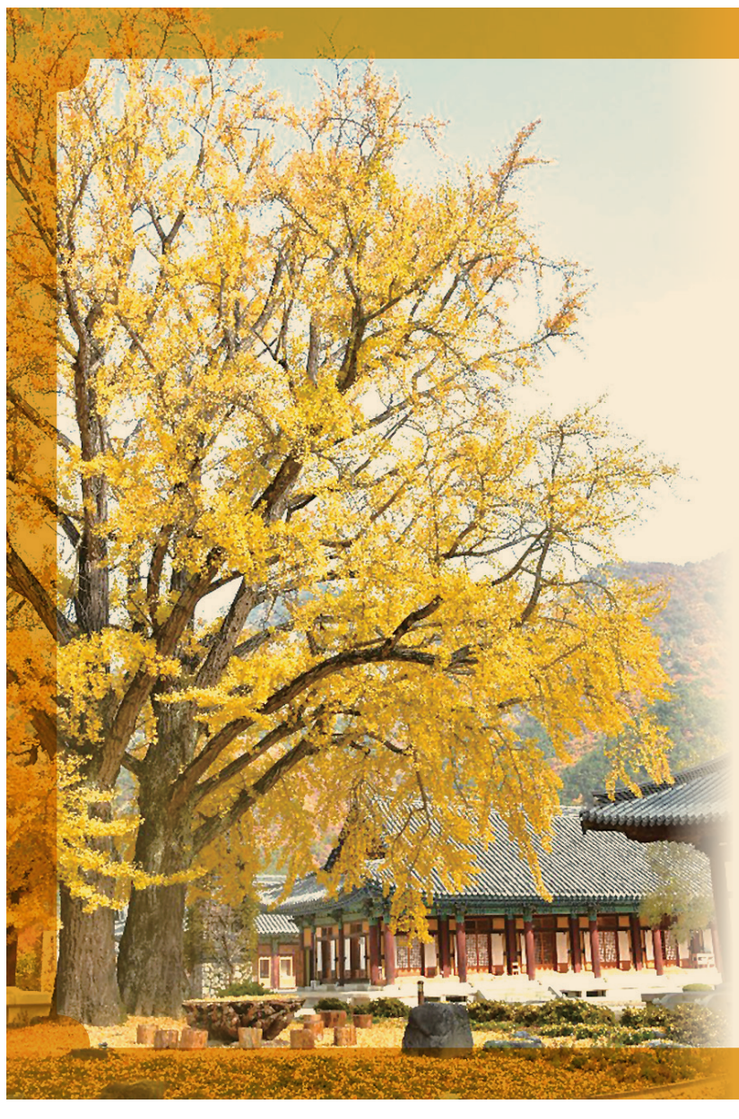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이 첫 취임 포부로 신도 역량 결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 직후 원행 스님은 "전임 회장이 8년간 열심히 이끌어 줬고, 후임으로 덕망 있는 분이 맡아줘 종단으로서 큰 복"이라며 "앞으로 스님과 신도간에 가교 역할을 통해 종단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부족하지만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명식후 주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함께하는 신도회를 만드는 계기를 찾겠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전국의 신도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을 갖고 중앙신도회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들께 알립니다

제49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취소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소중한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운문도량에서
매년 선·후배스님들을 모시고 총동문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선·후배스님들을
가을향 가득한 도량으로 초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운문인들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그리운 마음을 모아 내년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과 동문회비는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총동문회 회장 **운아스님** (010-3846-3217)
신임 총동문회 총무 **희상스님** (010-4200-5082)
신임 총동문회 재무 **우연스님** (010-5367-6391)

동문회 계좌번호 : 농협 351-0819-3700-43(운문사)

문의 : 054-370-7100 (운문사 종무소)
054-372-8800

불기2564(2020)년 9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일지 합장